

# “한진칼 경영권 노리는 KCGI... 지분 추가매수 예상”

〈행동주의 사모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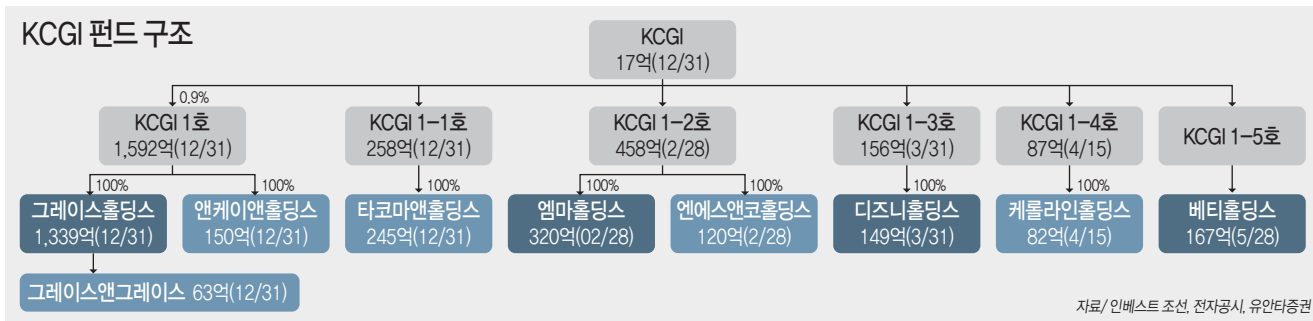
## 유안타증권 보고서

내년 주총서 경영권 분쟁 예고  
“한진그룹 주가흐름 분기점될 것”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한진칼 보유지분을 점차 20%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KCGI가 단순 행동주의 펀드가 아닌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최남곤·남정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1일 '미리 보는 한진그룹 왕자의 게임 시즌2' 보고서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 위해 KCGI는 한진칼 지분율을 20%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KCGI가 이미 41% 수준의 수익률을 거뒀고 투자 차익은 1250억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분 매입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 행동주의



펀드가 아닌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현 오키노 일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더라도 2020년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KCGI는 한진칼 지분을 15.84%(5월 28일 기준)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최 연구원은 “조원태 회장은 28.9%라는 우호 지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방어를 100% 자신할 수 없다”면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 위해 지분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주주총회가 한진 그룹의 주가 흐름 분기점이 될 것이라 분석이다.

그는 “현재 주가는 매우 낙관적 가정을 반영한 적정가(3만8000원) 대비로 20% 이상의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최 연구원은 “KCGI의 지분 확대에

따라 현 경영진의 강력한 쇄신안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쟁적 대응에 따라 내년 주총 전까지는 정상적 밸류에이션(가치평가)보다는 이슈와 수급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룹 주가 흐름의 분기점은 내년 주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총 이후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소 완화되며 한진칼 주가에 대한 투

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주총 전에 한진칼 매도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조양호 전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는 약 2522억원(상속 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시세 평균으로 결정), 조 전 회장의 퇴직금에 대한 상속세는 509억원~66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해사다.

최 연구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한진그룹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 이슈를 해결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며 만약 지분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이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나 가능한 시나리오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한국투자증권

#### 70억 한도 ELS 모집

한국금융투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3일까지 홍콩H(HSCEI),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추가연계증권(ELS) 12032회”를 총 7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해당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5%(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5.8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또한 두 번의 리자드 옵션이 추가되어 설정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6개월간 85%, 12개월간 75%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연 5.80%의 수익과 함께 자동 조기 상환 된다.

/손엄지 기자

### 하나금융투자

#### 안정성 보장 ELS 3종

하나금융투자는 안정성을 보장한 더블찬스 리자드 추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3종을 모집한다. 청약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까지다. 먼저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 225), 미국지수(S&P 500)를 기초자산으로 연 4.4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813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1차)·90% 이상(2차)·85% 이상(3~4차)·80% 이상(5차)·65% 이상(만기)이며 녹인은 없다.

/손엄지 기자

##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 전국최저 ‘투자 주의보’

전국 5.46% 대비 0.59%p 낮아  
광주 8.42%... 수익률 ‘전국최대’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철저한 수익률 분석이 요망된다. 서울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아사다.

리얼하우스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은 4.87%로 5월 전국 평균 오피스텔 수익률(5.46%)에 비해 0.59%포인트 낮았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투자금액 대비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연 수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 판단에 필수적인 지표다. 서울 속에서도 도심권과 동남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4.4%로 서울 동북권(5.13%), 서남권(5.28%)에 비해서도 낮다. 경기 지역도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경기지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서울 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5.33%다.

반면 광주광역시 오피스텔 수익률의 경우 8.4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어 대전광역시 7.12%이며 대구, 인천, 부산, 울산 등도 모두 6%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월세를 매매 가격으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오피스텔 투자수익률 4.4%를 기록한 서울 도심권의 오피스텔 단위면적(㎡)

당 가격은 690만원으로 광주광역시 153만원에 비해 4.5배 이상 높다. 서울 동남권도 오피스텔 단위면적(㎡) 당 가격도 68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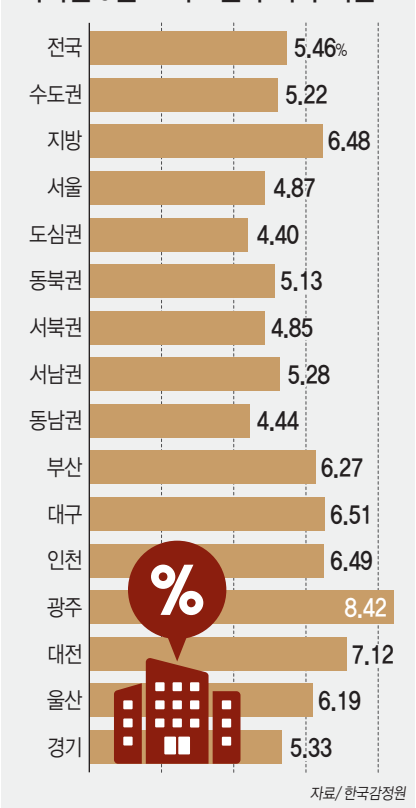
높아지는 오피스텔 분양가도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에 한 몫하고 있다.

최근 공급된 서울 마포 H오피스텔 전용 77㎡의 분양가는 15억910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용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785만원에 달한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분양승인 시 심사대상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은 예외다”며 “오피스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와 임대료를 잘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 지역별 5월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



자료/한국감정원

## KB증권, 세금지식 영상 ‘지·키·세’ 배포

매주 유튜브 등에 업로드

KB증권은 11일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세금지식을 다룬 학습 동영상 만들어 유튜브 등 KB증권 SNS채널과 홈페이지, 모바일앱(MTS)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키.세’ 쉽고 재미있는 금융상품과 세금 동영상 시리즈는 ‘펀드’편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개 카테고리씩 업로드 할 예정이다. ‘지.키.세’는 ‘지금 키워야 할 세금지식’의 줄임말로 KB증권의 자산관리 세금지식 브랜드다.

이번 시리즈는 KB증권 소속 세무전문인력(세무사)과 진행자가 각각 과외 선생님과 학생 역할을 하며 쉽고 재미있게 금융상품 세금지식을 풀어가는 컨셉으로 제작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필요한 동영상들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금융상품인 펀드, 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추가연



계증권(ELS), 랩어카운트, 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7개 상품 카테고리로 구성했으며, 질의응답 형식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동영상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이 동영상 콘텐츠는 KB증권을 거래하는 고객은 물론 일반인들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HTS, MTS와 같은 거래시스템을 비롯해 KB증권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도 업로드한다.

이형일 WM총괄본부장은 “금융상품 투자나 자산관리에 있어서 세금의 중요성은 매우 큰데 반해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 금감원, 공시정보 오픈 API서비스 확대

연말까지 추진, 내년 정식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정보의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DART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공시정보를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오픈API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금감원은 오픈API 정보제공범위를 현재 기업개황 및 공시 목록에서 세부 공시 내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공시서류는 공시 이용자가 DART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공시서류 원본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정기공시로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상에서 공시이용자들이 주로 관심 갖는 12종의 정보를 쉽게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12종은 ▲증

자(감자)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최대주주 현황 ▲최대주주 변동현황 ▲소액주주 현황 ▲임원현황 ▲직원현황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개인별 보수지급 금액 ▲타법인 출자현황 등이다.

지분공시는 지분보고서 상의 대표보고자의 보유주식내역 및 증감내역,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내역을 쉽게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재무정보로는 상장회사 재무제표를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XML, XBRL, TXT 등)로 활용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픈API, 공시정보 활용마당 등 DART 공시정보 개방서비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정보 오픈API 서비스를 활용, 민간부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